

#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묘수 없나” 지자체들 골머리

### 화순-광주 고교 공동학군제 1년째 제자리

### 나주혁신도시 사립고, 투자기업 없어 지지부진

### 여수, 멘토링 도입 등 고교 경쟁력 강화 안간힘

### 공동학군제 부활해도 인프라 부족 땀 ‘밀 빠진 독’

전남 자치단체들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비롯, 광주와 고교 공동지원제(공동학군제) 추진에 힘을 쏟는다. 하지만, ‘명문 사립고 유치’까지 검토하며 고교 진학을 위해 광주로 떠나는 인구를 막아보겠다고 나서고 있어서다. 이농(離農) 현상과 ‘인구 절벽’에 따른 학생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대로 된다면 심각한 인구 유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교육력 향상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되도록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화순, 1년 전 광주와 고교 공동학군제 한다더니...=화순군은 1년 전인 지난해 6월 28일, 오랜 숙원인 광주와의 고교 공동학군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993년 광주·전남 공동학군제가 폐지된 이후 23년만으로, 공동학군제를 통해 고교 진학을 위해 광주로 떠나는 인구 유출을 막고 광주의 중산층을 화순으로 끌어들이 인구 10만명의 교육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거창한’ 구상도 내놓았다.

이농현상에 대처, 전남 학생수 감소까지 맞물리다보면 이대로라면 인구 감소는 불보듯 뻔하다는 위기감이 반영된데 따

른 조치다. 화순군 관내 고교 진학률은 지난 2014년 91.45%에서 2015년 84.40%로 급감했다. 지난해 85.61%에 머무르면서 획기적 교육 대책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화순군은 이같은 점을 감안, 당시 전남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교육환경발전지원 조례 개정(2016년 9월말까지) 및 주민 의견 수렴 완료(2016년 10월 말까지) ▲매년 20억원을 교육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육 경쟁력을 높일 대책이 미흡, 지역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1년이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다만, 화순군은 오는 29일 하니문화스포츠센터에서 이같은 점을 반영,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을 담은 ‘명품화순 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남교육청에 광주와의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뢰할만한 교육발전대책을 내놓아 학부모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광주·전남 공동학군제는 1986년 11월 광주가 광역시로 격상하면서 전남도와 분리되자 폐지됐다. 다만, 시·도 고교 신입생 정원과 중학교 졸업자 균형을 이룰 때까지 전남지역 중학생들의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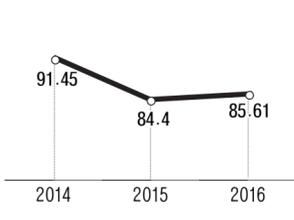
■여수학생들 타지역 고교 진학 현황

연도	타지역 고교 진학 현황 (단위:명·%)														
	과학교	전남외고	광양제철	장성고	창평고	곡성고	옥과고	능주고	상산고	한일고	영광해동고	순천지역	타지역(특성화)	계	비율(%)
2013	12	10	11	19	45	3	1	14	3			1	88	207	5.4
2014	8	12	17	14	55	5	3	10	3	3		5	83	218	5.95
2015	10	5	14	34	39	7	1	16	0	3	16	15	75(53)	235	6.4
2016	10	3	6	10	28	1	3	13	1	3	16	8	46	148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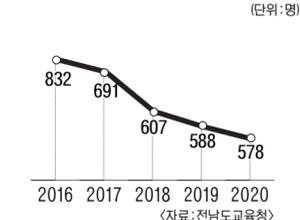
(2017년 3월 기준, 단위:명·%)

〈자료:여수교육지원청〉

■화순학생들 지역 고교 진학률 (단위:%)



■화순지역 중학교 졸업생 수 변화 추이 (단위:명)



〈자료:전남교육청〉

■나주시 고등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명)



〈자료:나주시〉

진학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1992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이농현상 등으로 전남지역 학생수와 인구가 감소되면서 시·군별로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1993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해 전남지역 중학생들의 광주 진학을 차단했다.

◇나주, 혁신도시 활성화 내걸고 추진 하는데...=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현안으로 ▲교육지원센터 설립 ▲에너지교육특구 추진 ▲혁신도시 사립고 설립 유치 ▲나주·광주 간 고교공동지원제 등을 꼽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현안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중인 교육지원사업 현황을 설명하기 위

한 시민토론회도 열렸다. 초·중학생(120명) 해의 어학연수 지원 방편이나 방학중 영어·중국어 체험캠프 등 나주시의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이뤄졌다.

특히 나주·광주 간 고교공동지원제 현 나주시장의 대표 공약 사업이고 사립고 설립은 혁신도시 입주민들 사이에서 오르 내리는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추진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고교 공동지원제의 경우 혁신도시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현안으로, 나주 지역 일반고 경쟁력에 대한 불신과 혁신도시 내 고교 부족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광주 이주 증가 뿐

아니라 지역 인재 유출로 장기적 지역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교육청도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경우 공동학군제가 성사되면 ‘공동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부정적 입장이다. 애초 광주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남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나주시가 지난해 2월부터 부시장을 팀장으로 운영중인 ‘명문사립고 유치 TF’도 부영을 비롯, 몇 군데 기업을 대상으로 협의에 나섰다. 무산되면서 활동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여수, ‘내고장 학교 보내기’ 안간힘=여수교육지원청이 펼치고 있는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은 지난해 인재 유출을 막는 효과를 봤다는 점에서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26일 여수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 출신 중학생 중 다른 지역 고교로 진학한 학생은 148명(4.62%)으로 전년도 235명(6.4%)에 견줘 감소했다.

여수의 경우 2013년 207명이 다른 지역 고교로 옮긴 데 이어 ▲2014년 218명 ▲2015년 235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었다. 창평고로 진학한 여수 지역 중 3 졸업생도 2013년 45명 수준에서 2014년에는 55명으로 증가했고 장성고(2014년 14명→2015년 34명), 능주고(2014년 10명→2015년 16명), 영광해동고(2014년 0명→2015년 16명)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는 사뭇 달랐다. 장성고(10명), 창평고(28명), 능주고(13명) 등 다른 지역 우수 고교로 전학을 떠나는 학생수가 소폭 줄었다. 여수교육청은 지난해 중학교 성적(백분위) 상위 10% 이내 학생(321명) 중 19%(60명)만 고교 진학을 앞두고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파악했다. 2015년에는 여수를 떠난 상위 10% 이내 학생들이 30%에 달했다. 이 때문에 지역 고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학생·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분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올해도 지역 중 3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 고교 홍보 자료’를 발간하고 ‘내고장 학교 보내기 진학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희망 중학생 신청을 받아 중·고교 교사들과 ‘멘토-멘티 진학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고교 독서 동아리 학생들이 최근 첨단고에서 열린 ‘시시(詩詩)한 시 읽기’ 행사에 참가, 운동주 작품을 주제로 토론·공연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 UCC·창작 시극·밴드 공연으로 운동주 읽기

### 광주시교육청, 고교 독서·토론 프로그램

김민재 문정영고 2학년 학생은 운동주의 ‘병원’을 읽고 “많은 것이 변하려 하고 있고, 변하고 있지만 방해하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전히 치료해야할 환자와 곧 환자가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어쨌거나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시를 읽는다”고 썼다.

최근 첨단고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의 ‘시시(詩詩)한 시 읽기’ 행사는 시를 통해 또래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독서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에 이어 올리는 시를 주제로 한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고교 독서·토론 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주제로 다양한 감상문을 쓰고 UCC를 제작하는가 하면, 창작 시극을 공연하고 운동주 작품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했다.

운동주 작품으로 한 밴드 공연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이날 ‘운동주를 읽는 4가지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시를 읽으며 오늘

날 운동주의 시가 갖는 의미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의 자세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교육청은 오는 28일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각이 통통! 시가 되어 반짝’이라는 주제의 ‘시 읽기’ 행사를 열고 다음달 21일에는 ‘놀러와, 시장(詩場)’이라는 주제로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시를 통해 시대와 세상, 또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초·중·고교별 수준에 맞는 시 읽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6000만원

문의 010-6496-2525